

제 1 회 청심 ACG 역사 대회
예시 문항

-학생용-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예선 예시 문항>

문제 1> 효승이는 신문을 읽다가 <어린 시절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했던 사실이 현 교황 베네딕트 16 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단체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히틀러 유겐트가 어떤 단체인지 그 전력과 관련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았다. 조사 후 효승이는 ‘내가 만약 교황 선출에 참여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 (다)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가) 히틀러 유겐트 :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가 만든 청소년 조직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 대를 대원으로 삼은 전국 단체였다. 독일 소년들은 열 번째 생일을 맞으면 관청에 등록하고, 인종의 순수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자격을 인정받으면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여 18 세까지 활동하였다. 가입한 소년들은 엄격한 스파르타식 생활을 통해 나치즘을 주입받았다. 이들은 숨어 있는 유대인이나 사회주의자, 반전주의자들을 찾아내 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대인을 숨겨 준 친부모를 상을 바라고 고발한 소년까지 있을 정도였다. 소년들은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총알받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야 하였다.

(나) 베네딕트 16 세 지지 세력 :

그가 6 세 되던 1933 년 독일에는 나치가 집권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나치 협력을 거부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했지만 신학 공부를 이유로 훈련을 면제받았다. 이후 베네딕트 16 세는 헝가리에 배치돼 유대인 대학살 현장도 목격했다. 그는 1944 년 4 월 탈영해 전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2 차 대전 종전을 맞으며 풀려났다. 그는 나치 전력에 관해 “나치에 반대했지만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다) 베네딕트 16 세 반대 세력 :

아우슈비츠의 악몽을 아는 사람들 중 그의 경력에 반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 세는 고국 폴란드에서 나치스에 의한 점령을 체험하고, 저항하면서 종교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그것과는 정 반대쪽에서 청년기를 보낸 베네딕트 16 세는 전 교황만큼 큰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아래 자료를 읽고 답하세요.

■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경위

전통사회에 있어서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은 대체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란기인 임진대환란 때의 피탈을 먼저 들 수 있다. 임진대환란 시 일본으로의 강제 수탈은 수월관음도(1995 년 7 월 호암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던 대고려국보전 때 최초로 국내에 소개) 몽유도원도 등 우리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물론 많은 서적과 도자기 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나아가 아예 이삼평과 같은 도공을 포로로 잡아간 데서 침탈의 저의를 쉽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열강과의 접촉시기인 조선시대 말기 병인양요와 같은 혼란기에, 프랑스군대에 의해 강화 외규장각 고서 등이 약탈을 당하였고,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소중한 문화재가 각국의 공사, 선교사·상인들에 의하여 수집 · 반출되었다.

세 번째로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진, 데라우치문고·아사이문고·오쿠라컬렉션 등 개인 수집품을 포함 '정책적·제도적 약탈'. 구한말 이후 광복 전까지 일본의 관학자들에 의하여 '문화재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위 문화재에 대한 공식 학술조사만 보아도 무려 1,370 건에 이른다.

다음으로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와 6·25 의 와중에서, 미 군속과 참전군인 소련군들에 의한 피탈품 역시 적지 않은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체로 사회 혼란기와 전쟁시기에 유출이 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 강제적 피탈이었기 때문에 그 경위나 경로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드물다. 유출경로가 밝혀져 강제 피탈로 확인된 경우는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외규장각도서(조선의 궤) 191 종 297 점과 일본 소재 조선 총독부 반출 문화재 294 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현황

다음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수량은 17 개국 64,852 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주로 외국에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어, 공개가 가능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미파악된 개인소장 문화재를 합할 경우 10 만 점 이상으로 추산되고있다.

■해외소재 한국 문화유산 소재국별 현황 (1996 년 12 월 현재, 단위 : 점)

일본 - 29,637 - 45.7%

미국 - 14,562 - 22.5%

영국 - 7,189 - 11.1%

독일 - 5,246 - 8%

소련 - 2,560 - 4%

프랑스 - 1,518 - 2%

덴마크 - 1,470 - 2%

중국 - 1,434

오스트리아 - 679

체코 - 250

폴란드 - 135

헝가리 - 58

벨기에 - 56

스웨덴 - 48

네덜란드 - 8

스위스 - 1

캐나다 - 1

계 17 국 - 64,852 점

■해외유출 문화유산의 환수 현황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정 등), 외국 정부의 기증(1993 년 한·불 정상회담) 민간인들의 기증 그리고 외국 경매시장에서의 구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일본.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4 개국으로부터 3 천 514 점이 환수되었다. 이 중 1996 년 초, 민·관 합 동으로 환수운동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된, 데라우치문고 1 천 5 백여 점 중 135 점은 매우 뜻깊은 문화재에 속한다.

유출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해외의 문화재 반환 사례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관정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한 · 불 정상회담시 외규장각 고서 1 점(「취경원원소도감」 1993 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준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여겨진다.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이 약소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후 되돌려 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 · 관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만이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수난의 우리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문화재청, 사례 13 건 책으로 펴내



간송 전형필(흰옷 입은 이)이 일제강점기 인천항에서 일본으로 실려 가기 직전이었던 국보 제579호 충북 괴산 외산리 석조부도를 거금을 주고 되사온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3~4 일 전 무기를 가진 일본인 130~200 명가량이 급습해 와서, 관리자와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탑을 해체하여 개성철도역으로 운반하고, 다시 부산으로 실어갔다고 한다.…우리 인민이 그 만행과 모욕에 능히 항거하여 일어설 것임은 이미 스스로 표시하였다. 만약 다나카 자작이 그 귀중한 석탑의 불법반출을 기어이 해 간다면 그가 능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1907 년 3 월 7 일자 대한매일신보는 논설로 일본의 궁내대신 다나카가 조선에 특사로 왔다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에 있는 경천사터십층석탑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서울신문의 전신으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 발행인으로 있던 대한매일신보는 이후 6월 5일자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다나카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사와 논설을 실었다.

또 미국인 호머 헐버트는 이듬해 일본의 ‘재팬 메일’과 ‘재팬 크로니클’ 등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 비난여론을 들끓게 했고, 결국 일본은 1918년 11월 이 탑을 반환했다. 이 탑은 경복궁을 거쳐 지금은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 이야기’(놀이 펴냄)를 내놓았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긴박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민족 문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문화재를 지킨 13건의 사례를 담았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에서는 500명 남짓한 낙오 인민군이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장지량 당시 제1 전투비행단 중령은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작전명령을 받고 미 고문단을 설득하면서 시간을 끄는 지혜를 발휘하여 해인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유산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을 비롯한 수천점의 문화재를 모아 오늘날의 간송미술관을 이룩한 간송 전형필도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뒤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다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낸 재불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의 오틀리엔 수도원에 있던 경재화첩을 국내에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베네딕도수도원의 선지훈 신부와 경복궁 자선당 유구를 일본 도쿄의 오키라 호텔 정원에서 발견하여 반환받도록 한 김정동 목원대 건축과 교수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문화재청은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과 김정동 목원대 교수, 북관대첩비의 반환에 힘쓴 초산 스님 등 생존인물은 물론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5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초청하여 감사장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하기로 했다.

- 서울 신문 2008.06.05

북관대첩비 100년만의 귀향

1905년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임진왜란 승전기념비인 북관대첩비가 3·1절을 맞아 원소재지인 북한으로 인도됐다.



▲ 1 일 북한 개성시 성균관에서 열린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에서 북측 대표인 김석환(왼쪽) 북관대첩비 되찾기위원회 위원장과 남측 대표 김원웅 북관대첩비 환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증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개성(북한) 공동취재단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유홍준 문화재청장)는 북한 북관대첩비되찾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환)와 함께 1 일 오전 11 시 개성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위원회 및 관련 문중회원, 한·일불교복지협회, 조선불교도연맹 등 남북한 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북 공동사회로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관련 경과보고, 북측 대표 김석환 위원장의 환영사, 김원웅 의원의 인사말, 유홍준 청장의 환송사,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 스님의 축사에 이어 인수·인도에 대한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환 위원장은 “북관대첩비 반환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전통과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남북이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일본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되찾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북관대첩비의 환수는 민족사의 수모를 씻는 상징”이라면서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들을 돌려받기 위해 북·일 수교협상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홍준 청장은 “이번 일은 남북 민간이 주축이 된 ‘문화의병운동’의 의미가 있다.”면서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 대표자들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역사왜곡, 문화재 약탈 등을 비판하는 ‘반일성명’을 발표, 눈길을 끌었다. 식이 끝난 뒤 북관대첩비는 참석자들의 배웅 속에 원소재지인 함경북도 김책(옛 이름 길주)으로 떠났다. 남북 관계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성균관과 선죽교, 표충비 등 개성 시내 주요 역사 유적지를 함께 둘러봤다.

북관대첩비는 이날 오전 7 시쯤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을 떠나 오전 10 시 개성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달 28 일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해 북관대첩비에 기록된 정문부 장군 묘소앞 경기도 의정부 충덕사에서 ‘북관대첩비 충의공 제향의식’이 열렸다.

일본군에 의해 강탈돼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다가 지난해 10 월 20 일 고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 뒤 고궁박물관 앞뜰에 전시돼 왔다. 앞으로 북측은 북관대첩비를 원위치인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리 언덕에 복원하게 되며, 남북은 복원 이후 남측 관계자들이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서울 신문 2006.03.02

문제 2-1> 위 기사에서 보여 지듯이 여러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받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문화재 반출의 역사적 배경, 현재 문화재 반출 현황 및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환수 받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학생 입장에서 각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문제 2-2>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중 대표적인 문화재인 외규장각 도서를 환수 받기 위한 UCC 를 제작한다고 가정하고 외규장각 도서의 해외 반출 배경 및 그 도서들의 역사적 의의가 충분히 담긴 콘티 6 컷을 아래 기준에 맞게 제작하시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 목적 :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외규장각 도서 환수를 위한 경각심 고취. 대상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시간 : 5 분 내외 |
|--|

<본선 예시 문항>

「1850년대 역사 뉴스」 제작하기

1. 조별 구성 :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4명을 한 조로 구성
2. 발표 시간 : 조별 30분 내외(질의 및 답변 시간 포함)
3. 준비 시간 : 4시간(자료 검색 및 자료 제작 시간까지 포함)
4. 제작 방식

- ①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중 어떤 나라의 뉴스를 제작할 것인지 결정한다.
- ② 아래 9개의 기사 중 5개를 선택하여 뉴스를 제작한다. 예를 들어 영국 뉴스를 제작한다면 런던 박람회, 자국 뉴스로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기사는 해외 뉴스로 제작하며 언어는 한국어로 통일하여 제작한다.
- ③ 뉴스의 특성 상 동시대에 일어난 일을 담는 것이 옳으나 역사 뉴스 이므로 세계 각 국에서 똑같은 시기에 중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 1, 2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는 각 국의 역사적 사건을 한 뉴스에 담는 것을 허용한다.
- ④ 기사를 취재하여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뷰, 대담 등 다양한 코너 및 다양한 시각을 뉴스에 담을 것을 권장하며 조원 4명의 역할이 앵커 등 한 사람에게만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각종 서적 및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나 자료를 쓸 때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다.
- ⑥ 뉴스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종이, 필기구 등은 조별로 제공되는 것만 사용한다.

<기사 1>

“자본주의 꽃 한자리에” 런던 박람회 개최

세계 각국 제품 자본주의 현주소 과시하듯 휘황찬란

[1851 년 5 월 1 일 런던]

오늘 런던 거리는 시종일관 축제 분위기였다. 정오를 기해, 하이드파크 남쪽에 세워진 수정궁에 헨델의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졌다.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이 입장하고, 곧 개막 테이프가 끊어졌다. 드디어 ‘런던 만국박람회’가 개막된 것이다.

지난해 앨버트 공이 “인간 재능의 모든 성과를 모아놓은 박람회”를 제안한 이래, 영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1848 년의 혁명으로 전 유럽이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해, 그러나 혁명의 거리에서도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대륙과 한 걸음 떨어져 혁명의 중심지에 있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세계자본의 중심지로서 박람회를 개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기부금이 걷히고, 박람회장을 짓기 위한 설계 공모전에 쟁쟁한 건축가 250 명이 도전했다. 그 결과 건설된 조립식 유리 건물, 편치지에 의해 수정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건물을 짓는 데 2 천 명의 노동자와 5 천 개의 철제 기둥, 30 만 장의 유리가 동원됐다.

현재 7 만 5 천 제곱킬로미터의 수정궁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1 만 3 천여 점의 산물이 전시되어 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중국과 일본 제품도 있고, 첨단 과학기구로 가득 찬 방도 있다. 개막식을 마친 영국 여왕은 맨체스터와 에딘버러로 직접 전보를 쳐보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몰려오면서 폐망 때까지는 600 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2>

[투고] 파리 노동자가 본 런던 박람회

파리를 출발한 지 고작 11 시간 만에 도착한 런던. 가스등이 환한 런던 거리를 증기기관차의 칙칙 푹푹하는 소리와 기차역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들로 부산했다.

공장 근처의 허름한 숙소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박람회장을 찾았다. 기계관에서 발견한 영국의 산업수준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이 기계와 함께 일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하자, 나는 오히려 두려워졌다. 어제 숙소에서 만난 피곤한 표정의 런던 노동자들은 박람회장에 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 그들은 이 기계들 앞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혁명의 깃발을 치켜들고 있을 때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다. 런던

박람회장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느낌이였다. 기술의 진보가 곧 인류의 진보는 아닐 텐데, 나는 어쩐지 자꾸 두려워졌다.

파리에서 인쇄공 페브랑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3>

나폴레옹 3 세, 쿠데타로 황제 즉위 제 2 제정 출범

[1852 년 12 월 프랑스]

나폴레옹이 돌아왔다. 이름도 같고 쿠데타를 통해 황제로 즉위한 것도 같고 자유주의를 탄압하며 “혁명은 이제 그만”을 외치는 것도 똑같다. 그러나, 48 년 전의 나폴레옹은 반혁명세력의 준동을 빌미로 내세웠지만 지금의 나폴레옹은 혁명적인 노동자의 위협을 구실로 삼고 있으므로 결코 단순한 반복은 아니다.

나폴레옹 1 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은 1848 년 2 월 혁명 이래 사회질서와 안정의 대표자를 자처, 그해 12 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파의 라마르틴에게 압승했다. 이어 작년에는 중산층의 안정희구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친위 쿠데타를 도발, 공화파를 의회에서 추방하고 독재를 수립했다. 최근 행정, 군사, 외교의 전권을 쥐는 황제 나폴레옹 3 세로 즉위한 것은 그 마무리 수순이었다. 나폴레옹 3 세는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외팽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4>

미국, 노예제로 ‘두 동강’ 위기

남부-북부 “노예제 찬성-반대”로 칼끝 대립

[1850 년 뉴욕]

미국정계에서는 노예제 찬반 논쟁으로 들끓는 가운데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새로 획득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시끄럽다.

의회에서 존 캘론 의원을 필두로 한 노예제 반대론자들은 일단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유럽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된 지 오래다. 우리 헌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노예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남부 주들이 기어이 노예제를 고수하겠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과 분리해 우리 북부만이라도 인권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남부 의원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래, 갈라설 테면 갈라서자”며 맞장구.

연방 분열의 위기 앞에 연방주의자들이 다급히 수습에 나섰다. 다니엘 웹스터 의원은 “자유와

연방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이도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며 의원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출해 절충을 시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유 주로 해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텍사스 주는 노예제를 허용하자는 것.

그런데 문제는 ‘도망 노예에 관한 조항’. 남부 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설치된 이 조항은 북부로 도망한 노예들을 남부 노예 소유주들의 붙잡아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연방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 북부의 흑인들 중 상당수가 남부에서 도망간 노예가 아닌가. 이번 타협안은 아무래도 거미줄로 방귀 동여매듯 영성하게 껴맨 봉합인 듯하다.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5>

California Forty Niners

"캘리포니아에 금맥" 일확천금 노리고 외지인들 '벌떼'

[1849 년 미국]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금을 골라내기 위한 세숫대야 하나씩을 들고 무작정 달려온 이들 덕분에 벌목꾼들 외에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던 캘리포니아가 인구 10 만 명의 대도시로 변모했고, 조용하던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술집과 도박장이 북적이는 유흥가가 됐다.

하지만 49 년의 사람들(Forty niners)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금채굴꾼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광은 이미 지주들이 차지했고 설사 사금을 채취하더라도 상당수가 술집과 도박에서 탕진한다. 차라리 49 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금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계란 한 알이 1.2 달러를 호가하고, 미국 동부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면 사금 한 자루를 내야 한다.

하여튼 미국경제계는 이번 골드러시가 최근 6 년 사이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금보유량을 늘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6>

태평천국 봉기 ... 청제국 내우외환

홍수전, 밀바닥 민중 이끌며 광서성 장악

[1851 년 9 월 중국]

거함 중국이 영국이라는 적함의 공격을 받고 기우뚱거리더니 이번엔 내부의 선상 반란에 직면했다. 그것도 지방 군벌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소작농, 숯 굽는 사람, 탄광 노동자처럼 낮은 신분의 민중들로 이루어진 태평천국군이 봉기, 정부군을 잇따라 격파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기독교 비밀결사인 ‘배상제회[拜上帝會]’를 구성하고 공공연히 청제국의 타도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황실은 아편전쟁 때 파직당했던 임칙서를 불러 반란 진압을 맡겼으나, 그가 부임 도중 병사하면서 진압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실정이다.

광서성 남부 금전촌에서 2 만 명의 세력을 확보한 배상제회는 지난 1 월 ‘태평천국’이란 자신들의 나라까지 선포했다. 만인이 고루 복을 누리는 기독교의 천국을 지상에 건설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월 지도자 홍수전(38 세)을 국왕으로 추대한 태평천국군은 이후 복상을 거듭, 현재 광서성 중부 영안을 점령하고 제국군과 대치중이다.

태평천국은 이곳 영안에서 독자적인 국가체제까지 세울 태세다. 한편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처 : 세계사 신문]

<기사 7>

헌종, 후사 없이 승하 강화도령 철종 즉위

[1849 년 6 월 조선]

선왕 헌종이 후사없이 갑작스레 승하함에 따라 강화도에 살고 있던 종친인 철종이 새 국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 후 대왕대비는 “주상은 영조의 혈통이나 강화 민가에서 갓은 고생하며 자라셨다. 신료들은 이점을 헤아려 국왕을 잘 보필하라.”는 언문교지를 내리고 곧바로 수렴청정을 선언했다. 이번 수렴청정은 국왕의 나이보다는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생활하여 글을 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왕대비는 곧 안동 김씨를 권력의 핵심에 기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풍양 조씨에서 안동 김씨로 세도가 급속히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역사신문]

<기사 8>

이양선이 몰려온다 정부, 해안 경비 강화

외국 선박이 계속 출몰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처음에는 영국, 프랑스 등이 서해 연안을 침입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 선박도 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양선이 오면 국적과 목적을 알아보고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거나 통상 요구는 교섭 자체를 거절해왔으나 이양선의 출몰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자 연해 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는 한편, 해안 지방 백성들이 외국선박과 밀무역하는 것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기사 9>

서양의 침입에 대비해야

지금은 권력다툼 할 때 아니다

서해에만 나타나던 이양선이 이제 전국 연해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다. 외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화를 자처해온 중국이 서양세력의 침략 앞에 무참히 짓밟혀 그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지금, 우리의 자세와 현실은 어떠한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동 김씨의 세도가 풍양 조씨로 넘어갔다고도 하고, 아직은 안동 김씨가 건재하기 때문에 설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도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엄혹한 국제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척들 간에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군기고의 무기는 녹슬어 가고 있고, 이미 300 년 전에 조총이 들어와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의 군대는 100 보 밖에서 화살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훈련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세도정권 등장 후의 온갖 부정부패로 아예 이러한 군대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무엇보다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내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내정을 개혁해야 이를 바탕으로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개방적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중국을 굴복시킨 서양세력은 먼 거리를 지척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천리경, 화력이나 뛰어난 화포, 수만 리를 향해할 수 있는 증기동력 철선 등 우수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로드 암허스트 호가 통상을 요구해왔을 때 이규경과 최한기가 통상을 통해서 서양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사실 때문이었다.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그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정책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를 창조의 계기로 삼는 민족만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서양세력의 접근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내정개혁과 외교 정책의 전환을 통한 부국강병의 적극적 계기로 삼는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